

## 농민자가규격 허용품목 겨우 '30종'

### 복지부, '한약재 품질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시중유통 국산약재 약1백여종인데...” 농민 반발 중독우려품목 선정도 객관적 과학적 근거 필요

국내 생산 한약재 중 중독 우려가 없는 30개 품목에 대한 농민자가규격화가 일차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한약재 규격화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농민 자가규격품 유통 허용 시기를 6월중 조기 시행토록 하라는 규개위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규개위는 “농민의 자가규격품 유통개선 방안은 단기시행방안인 만큼 내년 1월1일로 계획된 복지부의 시행시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내 생산 한약재 중 중독우려가 없는 품목에 대해 농민자가규격 허용을 6월중 우선 시행하고 1차 시행품목 이외의 한약재는 추가 검토후 12월말까지 추가 시행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농민이 취급할 수 있는 규격대상 품목을 국내재배 한약재중 중독우려가 없는 품목 30종으로 정하고 한약규격품을 취급할

수 있는 농민의 자격과 규격품 취급에 필요한 절차 및 표시기재 사항 규정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관련내용 3면〉 개정안은 그러나, 농가 부가가치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던 규개위의 당초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허용품목을 30종으로 한정함으로써 농가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규격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은 우선 한약규격품 취급신청서와 약용작물재배 확인서, 한약규격품 품목신고서등을 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등 자격을 제한하고 있을뿐 아니라 품목별 생산단위별 품질검사를 실

#### 농민이 취급할 수 있는 규격대상 한약재(제34조 관련)

○한약으로 사용되는 국내재배 한약재 중 중독우려가 없는 아래의 품목

강황, 결명자,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피, 방풍, 백작약, 백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오미자, 의어인, 지모, 지황(생·건), 천궁, 치자, 택사, 패모,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30종)

시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제도 정착 및 실용화 여부를 의심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입안예고된 30개 품목에는 자연산 채취나 소량 생산 품목들은 물론이고 국내 재배 품목마저도 다수 누락된 것이어서 농가로 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규제개혁위 의결사항대로 했을뿐”이라는 입장이다. 농림부 자료에 근거한 국내 생산 한약재 35종 중 대한본초학회 등의 의견조회 결과

중독우려품목으로 선정된 하수오, 천마, 반하, 시호, 독활 등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품목에 대해 농민 취급 가능 규격 대상 한약재로 선정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대한약전 수록 한약재 514개중 30개 품목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유통중인 국산한약재가 약 1백여종에 이름을 감안한다면 이번 자가규격대상 품목 선정은 아무래도 너무 어설피고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높다.

생산농민들은 “같은 인진익모초는 물론이고 황정이나 홍화씨, 진피만 하더라도 국내 생산도 많고 차나 가공식품으로의 개발도 활발한데 어떻게 이들 품목들도 모두 누락돼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가소득증대와 식품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한쪽에서는, 그동안 음식료품 원료 사용을 불허 또는 제한해온 일부 한약재들 조차 식품원료로 추가 인정토록 규제 완화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식품원료로 사용중인 품목(독활, 하수오, 천마)까지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 농민 자

가구격품 유통 허용 범위 자체를 제한하려 함은 사뭇 대치되는 제도적 모순이 아닐수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1차 시행품목 이외의 한약재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후 자가규격 허용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규개위서 제시한 허용범위 자체가 ‘국내생산 한약재 중에서 중독우려 있는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한정돼 있는 만큼 ‘국내 생산 한약재’라는 범주 내에서 추가 검토도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선 국내 생산 한약재에 대한 범주 설정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란 여론이 높다.

“국내 주요 재배 품목만이 아니라 자연산 채취에 의존하고 있는 약재등 소량이지만 생산 가능한 약재들은 모두 국내 생산 한약재에 포함하고 이중에서 복지부 고시 중독우려품목(7종)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농민 자가규격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게 농가들의 입장.

나아가서 지금 당장은 국내 미재배 품목이라 하더라도 국내 자급화를 위해 재배가 시도되고 생산기반이 육성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농민 자가규격화가 가능하도록 탄력적 제도운영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중독우려 품목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문정희〉



## “나도 일일 심마니”

### 생약협회,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우리생약살리기 차원, 매년 개최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5월23일 약초에 관심있는 일반인 120명과 함께 강원도 평창군 소재 계방산으로 약초기행을 다녀왔다. 약초기행은 올해로 6회째.

행사 참가자들은 전시된 약초 견본과 약초전문가들의 설명을 참고로 계방산에 자생하는 다양한 자원식물의 이름과 효능에 대해 배우고 생태를 관찰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기철 이사가 한약재를 원료로한 방향제 〈향기주머니〉를, 허수 강원도 지회장이 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건강식품 ‘동충하초환’ 10박스를 협찬 행사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국생약협회는 약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에서 지난 95년부터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제7회 약초기행 행사는 내년 5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 기 권 안 내

- 한약재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전문 ..... 3면
- 국내 최초로 감초꽃이 피었습니다 ..... 5면
- 꽃노랑 총채벌레 피해대책법 ..... 5면
- 최진규의 토종약초이야기 ..... 7면